

『素問·陰陽應象大論』“氣味傷五體”에 대한 考察

方正均¹⁾

<內容摘要>

通過“氣味傷五體”的考察, 得到了如下的結論

1. 如果將南方“熱傷氣”·“苦傷氣”的氣理解爲脈的神氣或脈氣, 將北方“寒傷血”·“鹹傷血”的血理解爲骨的精血, 南方和北方的氣血也和五體有關係.
2. 馬蒔和張志聰把西方“熱傷皮毛”的熱理解爲燥熱.
3. 如果將“熱傷皮毛”的熱理解爲燥熱, “熱傷氣”·“苦傷氣”的氣理解爲神氣或脈氣, “寒傷血”·“鹹傷血”的血理解爲精血, 南方西方北方也就可以理解爲自傷.

關鍵詞：神氣, 脈氣, 精血, 燥熱, 自傷

I. 序 論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자연계에는 무수히 많은 생물체가 존재하며, 그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활양태를 지니고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각기 자연의 법칙 속에서 생존하며,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 원칙에 인간도 예외일 수 없으니, 수많은 시간 동안 자연을 관찰하며 자연의 규율에 순응하는 삶의 양태를 모색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연을 五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天地自然을 五行의 범주에 담아 보려는 시도를 하였고, 아울러 인체도 五行의 도식 안에 넣어 자연과 인간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黃帝內經』(이하 『內經』으로 略稱)에서 표현하고 있는 五行歸類와 관련된 내용은 그 결과물 중 하나이니, 이후 한의학에서는 이 五行의 상

1) 尙志大學校

호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生理·病理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內經』이 한 시대, 한 개인에 의한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서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한 五行 配屬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氣味傷五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歷代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素問·陰陽應象大論』은 萬物을 取象比類하면서 五行을 기준으로 五味·五藏·五體·五色·五音·五聲·五官·五志 등을 배속하고 있다. 이러한 五行의 틀 속에서 人體를 인식하면서 “同氣相求”의 입장에서 五行屬性이 같은 것은 서로를 길러주고 營養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운이 지나쳤을 경우 오히려 같은 기운을 해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이것이 氣味가 五體를 傷하는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氣味가 五體를 傷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風氣는 筋을 傷하니 燥氣가 風氣를 勝하고, 酸味는 筋을 傷하니 辛味가 酸味를 勝한다. …… 熱氣는 氣를 傷하니 寒氣가 熱氣를 勝하고, 苦味는 氣를 傷하니 鹹味가 苦味를 勝한다. …… 濕氣는 肉을 傷하니 風氣가 濕氣를 勝하고, 甘味는 肉을 傷하니 酸味가 甘味를 勝한다. …… 熱氣는 皮毛를 傷하니 寒氣가 熱氣를 勝하고, 辛味는 皮毛를 傷하니 苦味가 辛味를 勝한다. …… 寒氣는 血을 傷하니 燥氣가 寒氣를 勝하고, 鹹味는 血을 傷하니 甘味는 鹹味를 勝한다.(風傷筋, 燥勝風, 酸傷筋, 辛勝酸. …… 熱傷氣, 寒勝熱, 苦傷氣, 鹹勝苦. …… 濕傷肉, 風勝濕, 甘傷肉, 酸勝甘. …… 熱傷皮毛, 寒勝熱, 辛傷皮毛, 苦勝辛. …… 寒傷血, 燥勝寒, 鹹傷血, 甘勝鹹)²⁾

上記한 조문의 “傷”字의 의미에 대해서는 歷代 注釋家들이 지나쳤을 경우의 폐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다만 위 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氣味가 五體를 傷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南方과 北方의 경우는 氣와 血이 五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五體는 筋·脈·肉·皮毛·骨을 지칭하는데, 南方의 경우에는 脈대신 氣라고 표현하였고, 北方에서는 骨대신 血로 표기되어 있다. 둘째, 天氣는 각 방위에 따라 風·熱·濕·燥·寒으로 배속을 할 수 있는데, 西方의 경우 天氣가 傷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燥대신 熱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傷의 의미를 自傷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自傷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24쪽

과 五行의 相克관계가 混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논자는 위 조문과 관계된 주석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歷代 注釋家들의 견해

楊上善은 北方의 “寒傷血”·“鹹傷血”의 경우 “血”字를 “骨”字로 보았고³⁾, 西方의 “熱傷皮毛”에 대해서는 “熱”字를 “燥”字로 보고 있다⁴⁾⁵⁾. 楊上善의 견해를 따르면 이 조문에서의 “傷”은 각 방위에 해당하는 天氣와 地味가 지나쳐 그 절도를 잃어 “自傷”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南方의 “熱傷氣”·“苦傷氣”의 경우 脈이 아닌 氣가 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을 氣味の 五體에 대한 自傷이라고 일괄적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후대 注釋家들은 楊上善이 原文을 바꾸어 보는 것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다.

『新校正』에서는 이 문장에서 제기한 傷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첫째, 東方과 中央, 그리고 西方의 辛傷皮毛의 경우는 自傷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둘째, 南方과 北方의 경우는 자기가 勝하는 바를 傷하는 것[傷己所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셋째, 西方의 熱傷皮毛에 대해서는 자기를 勝하는 기운이 자기를 傷하는 것을 당한 것[被勝傷己]이라고 이해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新校正』에서는 氣와 血이 五體에 배속이 되지 않는 것과, 西方의 熱이 방위배속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삼지 않고, 다만 본문에 나타나는 傷의 의미를 自傷과 五行의 相克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唐代의 王冰은 “熱傷氣”에 대해서 熱이 盛한 즉 喘息이 생겨 呼吸이 促急하다고 보았고, “苦傷氣”에 대해서는 苦味が 火를 生하기 때문에 氣를 傷한다고 보았다⁷⁾. “寒傷

3) 王冰 撰,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90쪽
“新校正云按太素血作骨”

4) 前掲書, 89쪽

“新校正云按太素作燥傷皮毛, 熱勝燥.”

5) 『新校正』에서 인용한 『太素』 관련 구절은 현존하는 『黃帝內經太素』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錢超塵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에서부터 “陽在外, 陰之使也”까지의 580餘字가 현재의 『太素·陰陽大論』에는 없고, 다만 日本의 『弘決外典鈔』에서 楊上善 注와 原文을 인용한 40餘 조문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錢超塵 著, 『黃帝內經太素研究』, 人民衛生出版社, 1998, 95쪽

6) 王冰 撰,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86쪽

“新校正云詳此篇論所傷之旨, 其例有三, 東方云風傷筋, 酸傷筋, 中央云濕傷肉, 甘傷肉, 是自傷者也. 南方云熱傷氣, 苦傷氣, 北方云寒傷血, 鹹傷血, 是傷己所勝. 西方云熱傷皮毛, 是被勝傷己, 辛傷皮毛, 是自傷者也. 凡此五方所傷, 有此三例不同. 太素則俱云自傷.”

血”에 대해서는 기후가 추워지면 血이 凝滯되기 때문에 血을 傷하고, 煎 것을 먹으면 갈증이 나니 이것이 바로 血을 傷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한편 “熱傷皮毛”에 대해서는 熱이 津液을 耗損하기 때문에 皮毛를 傷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⁹⁾. 이와 같이 王冰은 본문의 五行配屬상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熱과 寒이 氣血을 손상시키고, 熱이 津液을 耗損한다는 일반적인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明代의 馬蒔는 대체로 王冰의 주석을 따르고 있다. 다만 西方의 “熱傷皮毛”에 대해서 熱이 생기는 원인을 燥가 過해서 생긴다고 인식하여¹⁰⁾, 西方과 天氣의 配屬上 불일치를 해결해 주고 있다.

明代의 吳崑은 대체로 王冰의 주석을 따르면서, “熱傷氣”에 대해서 『內經』의 “壯火食氣”라는 구절을 인용하였고, “苦傷氣”에 대해서는 苦味가 肺氣를 傷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¹¹⁾. 苦味가 肺氣를 傷한다는 것은 火克金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또한 肺는 氣를 主하므로 “熱傷氣”의 氣도 肺氣로 인식할 수 있다.

張介賓은 “熱傷氣”에 대해서는 吳崑과 마찬가지로 壯火食氣로 이해하였고, “苦傷氣”에 대해서도 吳崑과 마찬가지로 肺氣를 傷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苦味가 氣를 손상하는 것에 대해서 陽氣의 上升하는 성질과 苦味의 下降하는 성질이 相衝하여 氣를 傷한다고 보았다. 즉, 南方에 해당하는 시절은 陽氣가 상승하는 때인데, 이러한 때 苦味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苦味는 그 성질이 下降하기 때문에 氣의 運行을 막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氣가 펼쳐질 수 없게 되니 이것이 바로 苦味가 氣를 傷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²⁾. 張介賓의 이러한 설명은 苦味の 성질을 이용하여 독특한 해석을 한 것이나, 그 자신이 火克金의 의미로 “苦傷氣”를 이해한 것과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한편, “寒傷血”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석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면서, 寒氣가 形體를 傷한다는 내용을 제기하여 血을 形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鹹傷血”에 있어서는 心血로 이해하면서 血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다¹³⁾. 즉, “寒傷血”의 血을 形으로 인식

7) 前揭書, 86쪽

“熱勝則喘息促急. …… 以火生也.”

8) 前揭書, 90쪽

“寒則血凝, 傷可知也. …… 食鹹而渴, 傷血可知.”

9) 前揭書, 89쪽

“熱從火生, 耗津液故.”

10)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48쪽

“在天爲燥, 燥之過者則熱, 熱傷皮毛, 惟北方之寒爲能勝熱”

11)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25쪽

“壯火食氣, 故熱則氣不足. …… 故從火化, 苦傷肺氣”

12) 張介賓 編著, 『類經』, 一中社, 1992, 40쪽

“壯火食氣也. …… 苦從火化, 故傷肺氣, 火克金也. 又如陽氣性升, 苦味性降, 氣爲苦遏, 則不能舒伸, 故苦傷氣.”

하여 骨의 개념에 한발 다가선 듯 하지만, “鹹傷血”에 있어서는 心血로 보면서 다시 水克火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張志聰은 “寒傷血”에 대해서 寒이甚하면 血이凝滯되어 傷하게 된다고 인식하면서, “熱傷氣”와 “寒傷血”에 있어서는 天氣가 五體를 傷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張志聰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氣와 血은 각각 陽과 陰에 배속이 되고, 火와 水도 陽과 陰에 배속이 되는데, 心이 火를 主하여 熱이 되고 腎은 水를 主하여 寒이 된다고 하였다. 때문에 熱이 氣를 傷하고 寒이 血을 傷하게 되니 이것은 同氣가 傷感하는 것으로 自傷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心과 腎이 五行 속성상 火와 水가 되어 自傷이 된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자신이 제기한 氣와 血이 五體와 관련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한편 “熱傷皮毛”에 대해서는 가을의 時令은 燥熱이라고 설명하면서 熱의 의미를 燥熱로 보아¹⁵⁾ 馬蒔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高士宗은 張志聰과 마찬가지로 氣와 血이 五體에 배속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心과 腎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氣와 血이 脈과 骨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고, 心과 腎이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즉, 心은 五臟의 神을 갈무리하고 있으면서 陽에 속하기 때문에 脈이라고 하지 않고 氣라고 하였으며, 腎은 五臟의 精을 갈무리하고 있으면서 陰에 속하기 때문에 骨이라고 말하지 않고 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⁶⁾. 高士宗은 “熱傷氣”의 氣는 脈과 관계된 神氣라고 보는 것이고, “寒傷血”의 血은 骨과 관계된 精血의 의미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氣가 脈과 관련이 되고 血이 骨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熱傷氣”와 “寒傷血”의 경우도 自傷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氣와 血의 五體와의 관계

13) 前揭書, 42쪽

“寒則血凝滯, 故寒傷血. 陰陽應象大論云寒傷形, 蓋形即血也. …… 鹹從水化, 故傷心血, 水勝火也.”

14)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9쪽

“寒甚則血凝泣, 故傷血. 王子芳問曰風傷筋, 濕傷肉, 以本氣而傷本體也. 在心則曰熱傷氣, 在腎則曰寒傷血者, 何也? 曰氣爲陽, 血爲陰, 火爲陽, 水爲陰, 心主火而爲熱, 腎主水而爲寒, 是以熱傷氣而寒傷血者, 同氣傷感也. 下文曰陰陽者, 血氣之男女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心腎爲水火陰陽之主宰, 故所論雖與別藏不同, 而亦是本氣自傷之意.”

15) 前揭書, 29쪽

“秋令燥熱, 反傷皮毛.”

16)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39, 41쪽

“心藏五臟之神, 而屬於陽, 故不言脈而言氣. …… 腎藏五臟之精, 而屬於陰, 故不言骨而言血.”

歷代 注釋家들은 대체로 南方의 “熱傷氣”·“苦傷氣”와 北方의 “寒傷血”·“鹹傷血”에서 氣와 血이 五體에 배속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다만 楊上善은 血을 骨로 바꾸어서 인식하여, 北方의 경우 自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氣에 대해서 脈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本氣가 五體를 傷하는 自傷의 의미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吳崑과 張介賓은 氣의 경우 肺氣라고 인식하면서 火克金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肺氣는 火에 配屬할 수 없으므로 그들 자신이 東方의 風氣와 中央의 濕氣에 있어 同氣相求 즉, 自傷으로 이해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¹⁷⁾. 한편, 張介賓은 “寒傷血”에 대해서 『內經』의 “寒傷形”¹⁸⁾의 구절을 인용하여 血을 形과 관련시켜 인식하면서 이전의 注釋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形이 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을 유추할 수 없지만, 이전의 注釋에 비해 骨의 의미와 접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鹹傷血”에 있어서는 血을 心血로 이해하면서 血의 의미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楊上善을 제외하고는 清代 이전의 注釋家들은 氣와 血이 五體에 배속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채, 熱氣와 寒氣의 屬性을 통해 氣와 血이 傷한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清代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清代의 대표적인 『內經』 注釋家로 師弟 지간인 張志聰과 高士宗은 氣와 血이 脈과 骨로 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張志聰은 氣와 血이 五體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氣와 火는 陽에 배속이 되는데 心이 火를 主하면서 熱이 되고, 血과 水는 陰에 배속이 되는데 腎이 水를 主하면서 寒이 된다고 인식하여 “熱傷氣”와 “寒傷血”을 自傷으로 이해하였다. 즉, 火와 水는 陰陽의 徵兆로 陰陽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火와 水에 氣와 血이 배속이 되고, 心과 腎은 陰陽을 主宰하는 것으로 熱과 寒이 되기 때문에 同氣傷感의 원칙에 따라 氣와 血을 傷한다고 보았다. 張志聰은 心腎이 陰陽을 主宰하기 때문에 陰陽을 상징하는 氣와 血을 傷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氣와 血이 어떻게 脈과 骨에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高士宗은 心腎과 陰陽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자신의 스승인 張志聰과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

17)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25~26쪽

“同氣相求, 自傷其類. …… 脾主肉而惡濕, 故濕勝則傷肉.”

張介賓 編著, 『類經』, 一中社, 1992, 39, 41쪽

“同氣相求, 故風傷筋. …… 脾主肉而惡濕, 故濕勝則傷肉.”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23쪽

“寒傷形, 熱傷氣.”

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心의 藏神 기능과 腎의 藏精 기능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氣를 神氣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血을 精血의 의미로 보는 것이다. 血을 精血로 이해하는 경우는 骨과 精의 관계 속에서, 精血이 바로 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氣를 神氣로 볼 경우는 神氣가 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脈에 흐르고 있는 것은 血이라고 할 수 있는데, 脈을 흐르는 血은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혈액이라는 形質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胃氣와 神氣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즉, 한의학에서는 脈을 통해 맥박 수와 혈압만 재는 것이 아니라, 그 脈을 통해 인체 내부의 五臟의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의 부위를 파악하는 등, 脈의 신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高士宗이 氣를 神氣라고 이해하는 것은 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清代 이전의 注釋家들은 氣와 血의 五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清代에 이르러 비로소 그 논의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張志聰은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高士宗에 의해 그 관계가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高士宗의 견해를 따른다면 南方과 北方의 경우에 있어서도 本氣가 本體를 傷하는 自傷의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熱傷皮毛”의 熱의 의미

西方의 경우 氣味가 五體를 傷하는 것을 『內經』에서는 “熱傷皮毛”와 “辛傷皮毛”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王冰·吳崑·張介賓 등 많은 注釋家들은 熱이 勝하면 津液을 손상하게 되고, 그 결과 皮毛가 손상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熱이 盛하게 되면 體內的 津液을 손상한다는 일반적인 病理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으로 五行의 相克, 즉 火克金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熱은 南方에 배속되는 天氣이고, 西方의 天氣는 燥라는 원칙에 비교해볼 때, 이 문장이 五行의 배속과 어긋나있다는데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明代의 馬蒔는 熱의 의미에 대해 燥가 過하게 되면 熱이 된다고 하여, “熱傷皮毛”의 熱이 燥와 관련이 있음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清代의 張志聰에 이르러 더욱 명확히 설명되고 있으니, 張志聰은 가을의 時令은 燥熱하다고 설명하면서 燥熱에 의해 皮毛가 손상되는 것을 언급하여, 熱의 의미가 가을의 時令인 燥熱임을 밝히

19) 金泰熙,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7, 7~8쪽

고 있다. 이러한 張志聰의 주장은 同時代의 喻昌에게서도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喻昌은 秋燥論을 제기하면서, 燥가 勝하면 精血이 枯渴되고 津液이 마르는 등의 변화가 생겨 피부가 거칠게 갈라지는 병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는데²⁰⁾, 燥의 의미를 火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秋燥의 개념은 溫燥와 涼燥를 포괄하고 있지만, 溫病學派에서는 주로 溫燥로 축소하여 이해하고 있으니 溫病學者인 吳鞠通도 溫燥를 강조하고 있다²¹⁾. 이렇게 본다면 熱을 燥熱로 인식하는 張志聰의 인식은 시대적인 潮流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熱傷皮毛”를 “燥熱傷皮毛”로 확대하여 인식하면 本氣가 本體를 傷하는 自傷의 경우로 볼 수 있다.

4. 傷의 의미

『內經』의 본 구절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각 時令의 天氣와 地味는 五行配屬상 그 時令에 해당하는 五體를 길러주고 營養하는 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本體를 傷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五行 配屬상 문제가 되는 時令을 제외하고는 歷代 注釋家들이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 설명하고 있다. 즉, 東方과 中央의 경우 王冰²²⁾·馬蒔²³⁾·吳崑²⁴⁾·張介賓²⁵⁾·張志聰²⁶⁾ 등은 모두 本氣와 本味が

- 20) 陳大舜 外 2人 譯음, 맹웅재 外 9人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570쪽
- 21) 李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이송실 통역, 『臨床溫病學特講』, 대성의학사, 2001, 465~466쪽
- 22) 王冰 撰,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85, 88쪽
“風勝則筋絡拘急. …… 過節也. …… 脾主肉而惡濕, 故濕勝則肉傷. …… 亦過節也.”
- 23)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46~47쪽
“在天爲風, 風氣通于肝則傷筋, 惟西方燥金爲能勝風. 在味爲酸, 酸太過則傷筋, 惟西方味辛爲能勝酸. 此皆金能克木, 故制其所勝者如此. …… 在天爲濕, 濕太過者則傷肉, 惟東方之風爲能勝濕. 在味爲甘, 甘太過者則傷肉, 惟木味之酸爲能勝甘. 此皆木能克土, 故制其所勝者如此.”
- 24)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25~26쪽
“同氣相求, 自傷其類. 燥爲金氣, 故勝木風. 酸過其節, 必傷于筋. 辛爲金味, 苦勝木酸. …… 脾主肉而惡濕, 故濕勝則傷肉. 風爲木氣, 故勝土濕. 過于甘也. 酸爲木味, 故勝土甘.”
- 25) 張介賓 編著, 『類經』, 一中社, 1992, 39, 41쪽
“同氣相求, 故風傷筋. 燥爲金氣, 故勝風木. 酸走筋, 過則傷筋而拘攣. 辛爲金味, 故勝木之酸. …… 脾主肉而惡濕, 故濕勝則傷肉. 木勝土也. 過于甘也. 酸爲木味, 故勝土之甘.”
- 26)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8~29쪽
“能生我者, 亦所能害我也. 燥屬西方之金氣, 四時五行之氣, 有相生而有相制也. 能養我者, 亦能傷我也. 辛爲金味, 故能勝酸, 金勝木也. …… 脾主肉而惡濕, 故濕勝則傷肉. 風乃木氣, 故勝土濕. 味傷形也. 酸乃木味, 故勝土之甘.”

勝하거나 太過하였을 경우 同氣相求의 이론에 의거하여 本體를 傷하는 것, 즉 自傷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다면 나머지 방위, 즉 南方·西方·北方의 경우에 있어서도 自傷으로 해석이 되어야 일관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楊上善의 경우 글자를 바꾸어 自傷의 의미로 풀이하고자 하였으나, 本文을 작위적으로 바꾸는 문제점과 “熱傷氣”·“苦傷氣”의 경우에 있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 단락에서 살펴본 歷代 注釋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본문을 그대로 보존한 채 自傷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西方의 “熱傷皮毛”는 西方의 天氣인 燥대신 熱로 표현된 문제점이 있다. 이 조문의 경우 馬蒔와 張志聰의 견해에 의거해 “燥熱”로 이해한다면 燥熱이 太過하여 皮毛를 상하는 自傷의 의미가 될 수 있다. 南方의 “熱傷氣”·“苦傷氣”는 氣가 五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高士宗은 五行 配屬상 火에 속하는 心이 五臟의 神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脈이라고 말하지 않고 氣라고 하였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高士宗의 注釋에 의거하면 氣는 神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 “神氣”라고 이해할 수 있다. 神은 脈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중요한 요소이므로 神氣는 脈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南方의 경우도 本方의 氣味가 本體를 傷하는 自傷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氣를 脈氣라고 볼 수도 있으니 神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自傷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北方의 “寒傷血”·“鹹傷血”은 血이 五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高士宗은 이에 대해 腎은 五臟의 精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骨 대신 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의거한다면 血은 精血의 의미로 보아야 하니, 精血은 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北方의 경우에 있어서도 自傷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熱傷皮毛”의 熱을 燥熱로 이해하고, “熱傷氣”·“苦傷氣”의 氣를 神氣 혹은 脈氣로 이해하며, “寒傷血”·“鹹傷血”의 血을 精血로 이해한다면 南方·西方·北方의 경우도 東方·中央과 동일하게 自傷의 의미가 될 수 있다.

Ⅲ. 結 論

以上の 考察을 통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清代 이전의 注釋家들은 氣와 血의 五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清代에 이르러 비로소 그 논의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張志聰은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高士宗에 의해 그 관계가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南方의 “熱傷氣”·“苦傷氣”의 氣는 脈과 관련된 神氣 혹은 脈氣로 이해하고, 北方의 “寒傷血”·“鹹傷血”의 血은 骨과 관련된 精血로 이해하면, 南方과 北方의 氣와 血도 五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西方의 “熱傷皮毛”의 熱은 明代의 馬蒔가 燥가 過하여 발생한 熱이라고 인식을 하였고, 清代에 이르러 張志聰은 가을의 時令이 燥熱이라고 하여 熱의 의미를 燥熱로 인식하였다. 가을의 時令을 燥熱로 이해하는 張志聰의 인식은 清代 盛行하였던 溫病學에서 제기한 秋燥論과 부합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熱傷皮毛”의 熱을 燥熱로 이해하고, “熱傷氣”·“苦傷氣”의 氣를 神氣 혹은 脈氣로 이해하며, “寒傷血”·“鹹傷血”의 血을 精血로 이해한다면 南方·西方·北方의 경우도 東方·中央과 동일하게 本方の 氣味가 本體를 傷하는 自傷의 의미가 될 수 있다.

IV. 參 考 文 獻

1.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2.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 金泰熙,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7
4.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5.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6. 李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이송실 통역, 『臨床溫病學特講』, 대성의학사, 2001
7. 張介賓 編著, 『類經』, 一中社, 1991
8. 錢超塵 著, 『黃帝內經太素研究』, 人民衛生出版社, 1998
9.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陳大舜 外 2人 엮음, 맹웅재 外 9人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1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